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본인이 설정한 목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 때의 감정(생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700~1000 자 10 단락 이내)[보기](#)

답변

전공과목인 운영체제 수강 당시 해당 수업에서 1 등을 하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처음에는 1 등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저 A 이상의 학점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동안의 전공 성적을 봤을 때 달성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해당 수업의 교수님은 간간하고 어렵지만 그만큼 얻어 갈수 있는 게 많은 수업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의 열의가 클 것이라는 것을 간과했고, 첫 번째 퀴즈 성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의 성적은 A 학점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업에서 1 등을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첫 퀴즈였던 만큼 비교적 쉬운 난이도였고 점수의 간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진행과 문제 유형 등에 감을 잡으면 충분히 실수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달성 가능성은 60%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필기를 하며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정리를 해서 요약본을 만들고 시험이나 퀴즈 전날이면 그 정리본을 보고 암기해가며 정석적인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미리 어려운 문제를 하나 알려주시고 시험에 출제하셨습니다. 미리 공지한 문제인 만큼 그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으셨고 퀴즈나 시험에서 정답률이 낮으면 답이나 풀이를 알려주지 않고 다시 다음 시험에 재출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풀어낸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틀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한 상황에서 틀렸기 때문에 상당히 암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과 채팅을 통해
같이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총 다섯 번의 퀴즈와 두 번의 시험이 있었고 저는 첫 퀴즈의 충격 이후
꾸준히 성적을 올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1 등을 했습니다.

글자수 988 자 1,696Byte

질문 **Q2.**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의 주변 반응/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점/
구체적인 실행 과정 및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700~1000 자 10 단락 이내) [보기](#)

답변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연구실 홈페이지를 맡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실 홈페이지에는 연구실 소개 및 연구 주제 등이 설명되어 있었고
연구실 구성원, 컨퍼런스 및 논문 등의 목록이 있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는 정적 웹페이지로 호스팅 되고 있었고, 위의 내용들도
모두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코드에 직접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연구실
구성원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변경될 때마다 해당 부분을
찾아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하고 다시 호스팅 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코드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실 홈페이지 내용의 변경사항이
생각보다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코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DB 를
연결하여 웹상에서 사용자가 게시판처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연구실 홈페이지의 용도는 외부 사람에게 보여줄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에 작동 방식이나 관리 방식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웹 관련한 연구실이 아니었기에 랩미팅때도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선배 한 분이 연구실 서버를 다시

구축하는 김에 제가 연구실 홈페이지를 스프링 부트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배포를 해보는게 어떻냐고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디렉션에 따라 스프링 부트로 기존의 웹 페이지를 마이그레이션 했고 기본적인 웹 서버 역할 구현 후에는 도메인을 모델링 하고 로그인, 구성원 추가 등의 서비스 로직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DB 를 설치하기 위해 도커에 대해 알아보며 연구실 서버 위에 DB 컨테이너를 띄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백오피스 기능을 구현했고 배포는 많은 부분 선배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나서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부분을 웹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html 을 알지 못하는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또한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